

# 사정 바람 속 주목되는 淸貧의 전통

## 청백리 열전 등 관련도서 줄이어…“가장 간소한 생의 선택”

문민정부의 ‘개혁주체’에 의해 ‘윗물정화 운동’이 한창인 요즘, 서점가에서는 淸白吏와 淸貧사상을 다룬 책들이 줄지어 선보이고 있다. 개혁대상에 대한 칼과 펜의 협공인 셈이다. 그러나 司正의 칼날이 “정말 써어도 너무 써었다”고 YS가 분개했던 일부개혁대상을 겨누고 있다면, 펜촉은 “민나 도로보데쓰”라던 ‘모든 도둑’의 양심을 찌른다. 환부를 도려낸다는 대중요법과 마음을 비우자는 근원치방의 차이이며, 개혁대상의 범주의 차이인 것이다. 나아가 청백리와 청빈사상을 다룬 책들은 비단 관리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소유나 존재냐’의 갈림길에서 존재의 오솔길로 걸을 것을 권유한다.

새정부 출범 이후 출간된 그러한 책은 ‘출판그룹 하늘’의 ‘이야기 청빈사상 시리즈’인 「거지정승」 「어사출또」 「배꼽마님」을 비롯하여 10여종에 달한다. 서점 점두를 일별하여도 「청백리열전」(윤종호 저, 동승동), 같은 제목으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상·하 두 권으로 나온 것과 어린이용 청백리열전인 「나도 청백리가 될래요」(열린원 저, 대교출판) 등이 금세 눈에 띈다. 번역서로는 태국의 청백리 잠롱 방콕시장의 자서전 등이 있다. 「잠롱, 내 삶의 이야기를」를 증보·개정한 「잠롱 스리무앙」(도서출판 창)과 잠롱의 민주화투쟁 부분을 상술한 「우리 함께 서다-잠롱, 나의 삶, 나의 투쟁」(예음)이 그것이다. 이들 책들이 다소 ‘열전류’에 속한다면, 「청빈의 사상」(나카노 고지 저, 서석연 역, 자유문화사)과 「빈 손 빈 마음」(강연희 저, 다산글방)은 청백리의 마음 자리를 짚어보는 ‘철학책’이다.

### 청백리와 청빈사상 다룬 책들 줄이어

‘열전류’에 소개된 청백리들은 「청백리열전」을 쓴 윤종호씨에 따르면 몇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그들은 녹만 가지고 생활했으며 어떤 부업도 갖지 않았다. 동생이 부업으로 염색업을 하려하자 김수평은 염료항아리를 뒤집어엎었다. 둘째, 부동산소유를 금기로 여겼다. 부인이 밭을 사자 윤석보는 거래를 물렸다. 셋째, ‘피는 못속인다’는 점이다. 황희와 그의 두 아들은 모두 청백리였으며, 고려 때의 유공규는 위아래로 몇대에 걸쳐 청백리였다. 이공승과 이춘, 허중과 허침은 각각 부자·형제 청백리로 유명하다. 넷째, 명군의 시대에 청백리가 많이 배출됐다고 한다. 태종·세종 때의 정승들은 대개 이름난 청백리였지만, 연

司正바람이 거센 요즘, 서점가에서는 청백리와 청빈사상을 다룬 책들이 연이어 소개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출간된 것만 해도

10여종을 상회한다.

이 ‘청빈서적’들은

공직자에게는 공직자 윤리 지침으로,

일반인에게는 금욕의 원리 내지

내적 자유를 도모하는 사상으로

읽히고 있다.

산군 때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청백리들의 모습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의 예증이라 할 만하다.

특히 ‘피는 못속인다’는 세번째 공통점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흥미를 끈다. 山淸·水淸·人淸이어서 三淸洞이라는 그 삼청동에 자리한 현 감사원 터는 성역없는 司正활동으로 유명한 맹사성이 살았던 자리이며, 현 감사원 수녀들이 한결같이 청백리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현 이회창 감사원장은 사헌부 대사헌 이운의 15대손이고, ‘사정의 실세’인 황영하 사무총장은 청백리의 대명사인 황희정승의 21대손이라 한다(한국일보, 6월 21일자).

이같은 청백리들에 관한 책들은 주로 조선시대 인물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조선 시대에는 청백리들을 표창하는 제도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얻기가 용이한 반면에 고려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청백리에 대하여는 확실한 기록이 별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권의 청백리책들은 저자의 취향이나 대상독자의 상이함에 따라 제각각 다른 서술방식과 문체를 갖는다.

「나도 청백리가 될래요」는 일화 중심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아동물이다. 신라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기록된 2백여명의 청백리 중 83명을 가려 뽑았다. 특히 이 책의 뒷표지에는 청백리가 되려는 어린이의 ‘생활수칙’ 10항이 열거돼 있어 이채롭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잘 도와주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 등 83인의 청백리의 삶에서



비 새는 집, 남루한 옷, 그러나 청백리들의 손에는 항상 책이 쥐어져 있다. 「나도 청백리가 될래요」에 수록된 삽화들

추출해낸 공통점을 요약한 것이다.

「청백리열전」(동승동)은 저자가 역사를 전공한 사학도, 사실에 충실하려 한 점이 돋보인다. 저자는 “고려사” 「해동명신전」 「대동야승」 「연려실기술」 등에 의거해 이 책을 썼다며 “재미있는 일화 역시 전해지는 기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전한다. “비가 오면 방안에서 우산을 쓰고 있어야 할 정도”로 청렴 결백했던 고려 10명, 조선 26명의 청백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야기 청빈사상 시리즈’는 시리즈라는 이름에 값하게 청백리의 여러 면모를 각 권에 나누어 조명한다. 첫째권 「거지정승」에서는 나라의 요직은 청백리가 맡아야 한다는 조선 조 ‘淸要사상’에 입각해 청빈한 공직자의 맥을 짚어 나간다. 둘째권 「어사출또」는 민심을 통해 천심을 읽고자했던 암행어사의 활약상을 그려낸다. 파패라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낡은 옷차림에 허름한 갓을 쓰고 황혼길을 걸어가던 치친 나그네 같은 암행어사의 이미지를 고관대작에 이르러서도 지켜냈던 이들의 일화가 모여 있다. 셋째권 「배꼽마님」은 이제나 그제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임을 보여준다. 남편이 처자식을 염려해 死六臣에서 빠져 있을 때 자결로써 남편을 깨우쳐준 신숙주의 아내 등 三從之道의 굴레 속에서도 남편과 자식을 指導했던 여인들의 일화가 소개된다.

### 청빈, 공직자 윤리 내지 나눔의 사상

한편 「청빈의 사상」 「빈 손 빈 마음」 「도를 지닌 사람은 가득차기를 원하지 않는다」(윤재근 저, 문학수첩)는 ‘청빈의 사상적 체계화’를 시도한다. 이 책들은 소유와 지배가 절대

가치화된 사회에 저항하는 전략과 공간이 각각 ‘빈 손’이며 ‘빈 마음’임을 역설한다. 청빈이란 “소극적인 금욕의 원리”가 아니라 “동양의 범신론적 감성에 근거한 우주와의 적극적인 일체화 원리”이자 “소유에 대한 욕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내적 자유를 도모한다는 사상”이라는 요지이다. 서양인에게 청빈이란 “순수한 가난”이지만, 동양인에게 “가장 간소한 생의 선택”이라는 것.

동서양인의 이같은 태도 차이를 ‘청빈의 사상’에서는 프롬이 「소유나 존재」에서 테니스와 일본 하이쿠의 시구절을 비교한 대목을 빌어 설명한다. 테니스에게는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꽃을 소유해야 한다. “벽 틈에 핀 꽃이여/…/나는 너를 뿌리째 손에 쥘다/…/그때 나는 신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하는 구절이다. 꽃의 존재를 파괴시키면서 꽃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눈을 크게 뜨고 보니/냉이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인다/울타리 밑에!”와 같이 동양적인 참다운 소유는 무소유이다.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함을 자처하는 것이 서양식으로 말하면 신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므로 동양의 청빈이란 “영혼의 돌과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참다운 청빈은 환경보호, 에콜로지, 심플라이프 등 대량소비사회나 자연 파괴에 저항하는 새로운 사상에까지 연결된다고 「청빈의 사상」은 주장한다.

청백리와 청빈을 다룬 책들은 이렇듯 청빈이란 단지 ‘공직자 윤리’가 아니라 ‘살림’과 ‘나눔’의 사상임을 설파하는 듯하다.

—김중식 기자